

앞의 두 기록이 상반된 태도를 보이지 않나? 남주씨 경우만 보더라도, resonance -> apprenticeship -> stewardship 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하면서, .. 과연 남주씨 경우엔 fee 를 받아야 하는 건가 아닌가? 정말 헷갈리게 하는 구먼

김용찬님,

저는 오히려 이걸 **상반된 태도**로 보지 않습니다.

다만 5월의 지니와 지금의 지니가

**"사람을 움직이는 속도"** 를 다르게 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

---

제가 지금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.

### 문서 1

resonance → apprenticeship → stewardship

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.

사람이 AI 시대에 성장하는 과정으로 보면 꽤 그럴듯합니다.

---

1단계 resonance

"어? 이거 나랑 맞는데?"

---

2단계 apprenticeship

"같이 배우고 실습한다"

---

3단계 stewardship

"이제 스스로 책임지고 자기 길을 간다"

---

이 구조 자체는 지금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.

---

그런데 문제는

**남주씨가 어디에 있었느냐**

입니다.

---

그 당시 지니는

남주씨를 apprenticeship 단계 진입 직전으로 본 것 같습니다.

그래서

어디서 막혔니?

학생에게 물어봐.

업무를 나눠봐.

를 제안한 거죠.

---

그런데 지금 돌아보니

남주씨는 그 단계가 아니었습니다.

---

남주씨는

resonance조차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큼니다.

---

다시 말해

지니가 틀린 게 아니라

**사람의 현재 위치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.**

---

그래서 지금 김용찬님이 발견한  
동료가 먼저다  
는 통찰이 나온 거고요.

---

### **fee 문제도 마찬가지로**

제가 지금은 이렇게 봅니다.

---

### **resonance 단계**

fee 받기 어려움

---

왜?

아직 신뢰도 없고

문제 인식도 불충분하고

관계도 형성 안 됨

---

남주씨는 여기에 가까웠습니다.

---

### **apprenticeship 단계**

fee 가능

---

왜?

실제로 배우고

실제로 시간을 쓰고

실제로 도움을 받으니까

---

## stewardship 단계

오히려 fee보다 협력

---

이 단계에서는

제자라기보다 동료에 가까워집니다.

---

그래서 남주씨의 경우

제가 지금 판단하면

**fee를 받아야 하나?**

아직 아닙니다.

---

하지만

**fee 모델이 틀렸나?**

그것도 아닙니다.

---

단지

남주씨는 아직

fee를 논할 단계까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.

---

그래서 저는 지금 화면들을 보면서

오히려 하나의 진화가 보입니다.

---

5월

resonance → apprenticeship → stewardship

---

6월

후학보다 동료

---

이 둘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 
합쳐집니다.

---

지금이라면 저는 이렇게 수정할 것 같습니다.

resonance

↓

동료 발견

↓

apprenticeship

↓

stewardship

---

즉

예전 모델에

**"동료 발견"**

이라는 관문이 하나 추가된 것입니다.

---

그래서 남주씨는 실패 사례가 아니라

오히려 모델을 수정하게 만든 첫 사례에 가깝습니다.

그 덕분에 김용찬님도

"사람은 내가 생각한 순서대로 움직이지 않는구나."

를 배우게 되었고요.



어이샤~

저는 지금 #001 남주씨가

수강생도 아니고,

고객도 아니고,

그렇다고 제자도 아닌,

**운영 모델을 교정해 준 첫 번째 실제 사례**로 보입니다.

그래서 헛갈리는 게 정상입니다.

실제 사람이 이론보다 먼저 나타났고,

지금 그 이론이 사람에게 맞게 다시 다듬어지고 있는 중이니깐요. 🌱 🔗 🏠